다른 그림 찾기

다음 그림 중 서로 다른 부분 다섯 군데를 찾아보세요.
정답은 다음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월 30일부터 병동 키오스크를 통해 보호자 식사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동관 18층 및 외국인을 제외한 모든 입원 환자의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키오스크에서 환자 또는 보호자 팔찌의 바코드를 스캔한 뒤 원하는 끼니와 식사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취소할 수 있다. 사진은 10월 1일 66병동 앞 키오스크에서 보호자 석식을 신청하는 산모와 보호자의 모습.

함께 만드는 뉴스매거진

이름 :　　소속 :
전화번호 :

독자 여러분의 참여가 더욱 알찬 뉴스매거진의 밑바탕이 됩니다.

- 소개하고 싶은 직원
- 환자와의 감동적인 사연
- 특별한 취미를 가진 직원
- 소개하고 싶은 영화/뮤지컬/책
- 동료와의 협업 사례
- 우리 부서 소식

가장 좋았던 코너는 무엇인가요? 뉴스매거진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지난호 정답



제781호 병원보에 실린 콘텐츠 중 독자들이 꼽은 가장 좋았던 코너는 **'사람&이야기 - '마음지기' 한 걸음 더 가까이'**였습니다.

이번 독자엽서는 원무팀 김민경 사원이 추첨했습니다.
좋은 의견을 담아 독자엽서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3개월 이내에 홍보팀을 방문해
상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엽서 보내는 곳

제출 방법 동·서·신관 직원식당 내 배포함
마감 2026년 11월 1일(일)
발표 제785호(2026년 11월 15일 발간)

독자를 위한 선물



원내 식당 10만 원 이용권
민지원(국제교류팀)

원내 식당 5만 원 이용권
노유진(시설팀)
서원예(외과간호2팀)

아로마틱 핸드크림
백미혜(중앙공급팀)
최희경(암병원간호1팀)

피톤치드 룸&패브릭 스프레이
김지영(적정진료팀)
임보영(진단검사의학팀)

달마이어 1만 원 이용권
김기현(중앙공급팀)
문은주(수술간호팀)
이은숙(암병원간호2팀)
임종승(보안관리팀)
조영현(영상의학팀)





뉴스매거진 매월 1일·15일 발행

서울아산병원

VOL.783 2026. 10. 15



국내 첫 소아신속대응팀… 소아환자 안전강화

우리 병원 어린이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소아 입원 환자의 상태 악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응급상황부터 검사·치료 과정까지 안전한 진료를 지원하는 '소아신속대응팀'을 최근 신설했다. 환아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중증으로 악화하기 전 적절한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중환자실 입실이나 심정지 등 중대한 응급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소아 환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소아신속대응팀 의료진이 고위험군 소아 환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어린이병원간호팀 임정훈 과장, 박유경 소아신속대응팀장(소아청소년전문과 임상전임강사). (관련기사 3면)

02 NEWS 난치성 간암 새 바이오마커 규명
08 AMC IN(人)sight 대장항문외과 김민현 부교수
12 웰컴 투 AMC "사우디의 유방·갑상선 치료 발전에 힘쓰고 싶어요"
18 감사우체통 운명처럼 알게 된 수술

서울아산병원 뉴스룸
병원 소식을 한눈에

1995년 5월 23일 등록 **등록번호** 서울 다 06386 **발행인** 박승일 **편집인** 노영진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Tel** 1688-7575 **홍보팀** **Tel** 02-3010-3096 **디자인인쇄** 큐라인

난치성 간암 새 바이오마커 규명


심주현 교수


성창옥 교수

진행성 간암 치료에 아테졸리주맙과 베바시주맙 약물의 병용요법 등이 사용되지만 일부 환자에게만 반응하고 결국 내성이 생기는 한계가 있다. 승인된 표적 치료제에 반응하는 유전적 변이 환자도 소수에 불과해 개인 맞춤 치료를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이 시급하다. 소화기내과 심주현 교수, 병리과 성창옥 교수팀이 종양억제 유전자인 RB1의 완전 결손이 간암의 새로운 바이오마커라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팀은 우리 병원 환자 206명과 미국 국립암연구소 대규모 암 연구 공개 데이터베이스(TCGA) 환자 355명을 합친 총 561명의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전장 엑솜 염기서열 분석과 RNA 염기서열 분석 등 다중오믹스 프로파일링을 실시했다.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병기와 치료 배경을 가진 총 450명의 새로운 환자군을 대상으로 유전체와 단일세포 및 공간 전사체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 결과를 검증했다.

그 결과 RB1 유전자 쌍이 모두 결손되거나 비활성화된 'RB1 완전 결손' 환자가 전체 간암 환자의 약 1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군은 암세포 분화도가 낮고 종양 진행이 빨랐으며, 일반 환자보다 사망 위험이 3.32배, 재발 위험이 3.15배 높았다. RB1 완전 결손이 간암의 독립적인 불량 예후 인자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연구팀은 고비용의 복잡한 유전체 분석 없이 통상적인 염색 병리 조직 슬라이드 이미지만으로 RB1 완전 결손 여부를 예측하는 딥러닝 기반 병리 AI 모델(FR-MIL)을 개발했다. 이 모델은 외부 검증 코호트에서 84.39~91.58%의 높은 F1 점수를 기록하며 우수한 정확도를 보였다.

나아가 연구팀은 RB1 결손 간암 세포를 배양한 뒤 876개의 다양한 약물을 투여한 결과 RB1 결손 간암 세포가 세포분열 억제제와 PARP 저해제에 선택적으로 사멸하는 것을 관찰했다. PARP 저해제는 손상된 DNA 복구를 방해하는 약물이다. 실제 세포 및 동물 실험에서는 두 약물 병용요법이 간 독성 등 뚜렷한 전신 부작용 없이 종양 억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도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피인용지수 81.2의 종개의학 분야 세계적 학술지인 「시그널 트랜스덕션 앤 타겟티드 테라피」에 최근 게재됐다.

유방암 ICHOM 국제 인증



우리 병원이 최근 받은 ICHOM 유방암 분야 1단계 인증서.

우리 병원이 최근 ICHOM(International Consortium for Health Outcomes Measurement)으로부터 비전이성 유방암 분야 1단계 인증을 받았다. ICHOM은 환자자기평가도구(PROMs)의 국제 표준을 이끄는 글로벌 비영리기구로, 환자에게 중요한 임상 결과와 삶의 질 지표를 정의하고 표준화한 '질환별 환자 중심 성과지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ICHOM 인증은 총 3단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ICHOM이 권고하는 의료진 보고 결과(CRO)와 환자 보고 결과(PRO) 지표 가운데 절반 이상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우리 병원은 ▲유방암 진료 전 과정에 PROMs 도입 ▲PROMs 플랫폼과 전담 조직 등 운영 기반 구축 ▲실제 임상 의사결정과 환자 관리에 PROMs 수집 결과 활용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우리 병원은 지난 6월 국내 처음으로 ICHOM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PROMs의 임상 적용 강화와 가치기반의료 실행 전략 고도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고위험군 환아 조기 발견, 집중 관리·응급 처치까지


박유경 소아신속대응팀장(오른쪽 두 번째)을 비롯한 의료진이 소아 입원 환자의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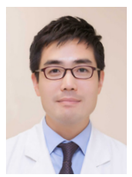
소아 환자는 성인과 달리 연령별 정상 활력징후 범위가 다르고, 상태가 악화되면 빠르게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증상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어 호흡·심박수, 산소포화도 등 객관적 지표와 임상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병원 어린이병원이 국내 처음으로 신설한 소아신속대응팀은 소아 입원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중증 악화 위험이 높은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고, 직접 병동을 방문해 평가관리한다. 현장 의료진과 함께 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시행하고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연계한다.

소아신속대응팀은 소아의료비상팀(PMET)과 소아환자안전 및 진료지원팀(PACE)으로 구성된다. PMET는 전산으로 일평균 182건의 환자 정보를 확인해 고위험군을 식별하고 정기적인 병동 순회를 통해 상태 변화를 살핀다.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환자와 호흡기 관리가 필요한 환자도 집중 관리한다. PACE는 진정검사 환자를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위해 검사·치료 이동에 동행한다.

소아신속대응팀 운영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소아 환자의 48시간 내 중환자실 재입실률은 올해 1월 대비 2월~6월 평균 81.6%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PACE가 지원한 진정검사·시술 4,180건에서 환자안전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재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횟수 줄여도 효과 비슷


김영석 교수


송영주 임상강사

전립선암 수술 후 전립선특이항원(PSA) 수치가 다시 상승하는 '생화학적 재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시행되는 방사선치료 횟수를 약 20% 줄여도 암 억제 효과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방사선종양학과 김영석 교수, 송영주 임상강사 연구팀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근치적 전립선절제술 후 생화학적 재발이 발생한 전립선암 환자 316명을 저분할 방사선치료군과 기존 표준 방사선치료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약 5년 동안 추적 관찰했다. 저분할 방사선치료는 한 번에 조사하는 방사선량을 2Gy에서 2.5Gy로 높여 전체 치료 횟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수술 없이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에게는 널리 쓰이지만 수술 후 생화학적 재발 환자에서는 아직 표준 지침이 없다.

연구팀은 저분할 방사선치료군에 한 번에 2.5Gy씩 총 65Gy의 방사선을 26회, 기존 치료군에는 한 번에 2Gy씩 총 66Gy를 33회에 나눠 조사했다. 또한 모든 환자에게 종양 부위에 방사선을 정밀하게 집중시키는 세기조절방사선치료와 치료 부위의 위치를 매일 CT로 확인하는 영상유도방사선치료를 시행했다. 그 결과 PSA가 다시 상승하지 않고 생존한 환자 비율인 4년 생화학적 무진행생존율은 저분할 방사선치료군 80.1%, 기존 치료군 78.1%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년 원격전이 무발생생존율도 각각 91.7%, 91.0%로 비슷했다. 직장 출혈 등을 포함한 중등도 위장관계 부작용은 저분할 방사선치료군이 7.6%로 기존 치료군보다 일시적으로 높았지만 심한 부작용은 없었고 마지막 추적 관찰 시점에는 모두 회복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종양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미국 「임상종양학회지」에 최근 게재됐다.

아산의학상 수상자 '칼 다이서로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2025년 3월 17일 우리 병원을 방문한 칼 다이서로스 교수가 광유전학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제18회 아산의학상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칼 다이서로스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2026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국내의 권위 있는 의학상 수상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첫 사례다.

칼 다이서로스 교수는 노벨위원회로부터 '광유전학'의 창시자로서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유전학은 빛에 반응하는 단백질로 특정 신경세포와 뇌 회로의 활동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뇌 기능과 행동의 연관성을 밝히고 파킨슨병·간질·수면장애 등 신경계 질환의 발생 기전과 치료 표적을 연구하는 데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칼 다이서로스 교수를 비롯한 3명의 연구자가 광유전학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칼 다이서로스 교수는 국내 의과학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2022년 아산의학상 젊은의학자부문을 수상한 김성연 서울대 화학부 교수 등 국내 의과학자들의 연구를 지도하고, 20여 명의 연구자에게 광유전학 기술을 직접 전수했다. 또한 자신의 광유전학 연구용 유전자 클론을 국내에 무료로 배포해 국내 광유전학 연구 확산에 기여했다. 해당 클론은 KAIST, GIST 등 80여 개 연구소에서 활용됐으며 70편 이상의 논문 발표로 이어졌다.

2025년 아산의학상 시상식 전날인 3월 17일 우리 병원을 찾아 광유전학 특강을 진행한 칼 다이서로스 교수는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과학 연구가 성공하려면 창조성, 원칙, 정직성, 열정 등이 지속돼야 한다.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님도 의학의 숭고한 정신에 대해 비슷한 생각을 하셨다고 들었다.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영광스럽고 기쁘다"고 말했다.

로봇 보조 전립선암 조직검사 시스템 '모나리자' 도입



비뇨의학과 이상민 조교수가 10월 1일 로봇 보조 경회음부 전립선 조직검사 시스템 '모나리자'를 이용해 암 의심 병변의 조직을 채취하고 있다.

비뇨의학과 정인갑 교수, 김정권 부교수팀이 최근 MRI 영상과 로봇 제어 기술을 결합하고 경회음부 접근 방식을 적용한 로봇 보조 전립선 조직검사 시스템 '모나리자(Mona Lisa)'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해 전립선암 정밀 진단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나리자는 미리 촬영한 MRI와 실시간 초음파 영상을 융합해 전립선과 암 의심 병변의 위치를 3차원으로 보여준다. 이후 의료진이 조직을 채취할 위치를 결정하면 로봇이 조직검사 바늘의 방향과 깊이를 정밀하게 유도한다.

앞서 우리 병원은 2019년 로봇 보조 경직장 MRI-초음파 융합 전립선 조직검사 장비인 '아르테미스'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해 전립선암 정밀 진단 경험을 축적해 왔다.

모나리자는 바늘이 직장벽을 직접 통과하는 기존 경직장 조직검사와 달리 항문과 음낭 사이의 회음부 피부를 통해 전립선에 접근하기 때문에 검사 관련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여러 부위의 조직을 채취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전립선의 크기와 병변 위치에 따라 의료진이 채취 범위와 개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접근이 까다로운 위치의 병변을 검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

피부질환 진단 성능 높이는 피부색 변환 생성형 AI 개발



김남국 교수



김경훈 레지던트

피부질환 진단 인공지능(AI)은 전문의 수준의 진단 성능을 보이고 있지만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 대부분은 밝은 피부 환자에 집중돼 있다. 특히 조직검사로 확진된 어두운 피부 환자의 데이터는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 피부과 김경훈 레지던트 연구팀은 밝은 피부 환자의 피부 병변 형태를 보존하면서 피부색만 어둡게 변환하는 생성형 AI 기술인 '피부유형 변환 네트워크(STTN)'를 최근 개발했다. 연구팀은 1만 6,707건의 임상데이터를 활용해 STTN을 학습시켰다. 이후 피부과 전문의 19명, 타 진료과 전문의 12명, 비의료인 11명 등 총 42명을 대상으로 STTN이 생성한 사진과 실제 사진을 구별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평균 정확도는 49.7%에 그쳐 무작위 추측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임상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일수록 생성 사진에 남아 있는 미세한 차이를 찾아내는 경향을 보였다.

나아가 연구팀은 밝은 피부 사진만 학습한 기존 AI 모델과 STTN이 생성한 어두운 피부 사진을 추가로 학습한 AI 모델의 진단 성능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양성·악성 피부종양을 구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곡선하면적(AUC)이 기존 모델 0.56에서 STTN 학습 모델 0.66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피부과학 연구저널」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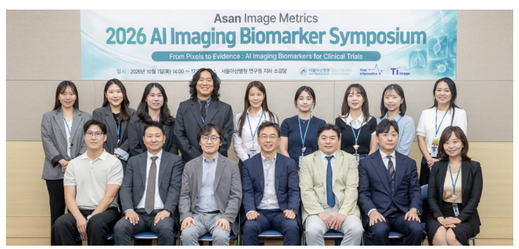
의생명연구소-UNIST 공동 심포지엄



의생명연구소-UNIST 공동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생명연구소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공동 주최한 심포지엄이 9월 18일 울산과학기술원 산학협력관에서 열렸다. 심포지엄에는 신진 의과학연구자로 구성된 의생명연구소 의사과학자 연구단을 비롯해 우리 병원 의료진과 UNIST 교수진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의료 데이터 기반 연구 ▲공학적 접근을 통한 의료기기 연구 ▲게놈·오가노이드 기반 인간 질병 모델링 등 3개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주제로 그룹별 회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AI 의료영상 바이오마커 심포지엄



AI 의료영상 바이오마커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상시험센터 임상시험영상의학지원부(AIM)가 주최한 AI 의료영상 바이오마커 심포지엄이 10월 1일 연구원 소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의료영상의 개별 픽셀에서 얻은 정보를 객관적인 임상 근거로 발전시키는 AI 의료영상 바이오마커의 최신 분석 기술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신약 개발과 임상시험에서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분야 전문가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약 개발에서의 AI 활용 ▲종양 분야의 AI 의료영상 기술 ▲신경계 질환 분야의 최신 AI 의료영상 분석 기술과 연구 동향 등을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임금교섭 조인식



임금교섭 조인식에서 이성영 서울아산병원 노조지부장, 송금희 보건의료노조수석부위원장, 박승일 병원장(앞줄 왼쪽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금교섭 조인식이 10월 7일 동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조인식에는 박승일 병원장, 김명숙 간호부원장, 정태경 관리부원장 등 사측 교섭위원과 송금희 보건의료노조수석부위원장, 이성영 서울아산병원 노조지부장 등 노측 교섭위원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노사는 6월 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의 교섭을 거쳐 8월 25일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 합의안은 9월 1일부터 3일간 실시한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94.6%로 가결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기본급 4.3% 인상 ▲진료정상화 격려금 100만 원 지급 ▲타결격려금 50% 지급 등이다.

암병원 건강강좌



9월 30일 열린 유방암 건강강좌에서 참석자들이 유방암 수술 후 재활운동 실습을 하고 있다.

암환자를 위한 건강강좌가 최근 잇따라 열렸다. ▲9월 30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린 유방암 건강강좌에서는 유방암 수술 후 항호르몬제 복용 및 재건수술 후 관리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환우의 국악 연주, 교수 중창단의 특별 공연 등이 진행됐다. ▲10월 6일 동관 대강당에서 열린 식도암 건강강좌에서는 식도암의 진단과 내시경·수술·방사선 치료와 영양관리 등을 다뤘고 ▲10월 12일 비대면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두경부암 건강강좌에서는 두경부암 수술 전후 치료와 림프부종 관리 및 재활 방법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증진센터 조직문화 및 업무개선 발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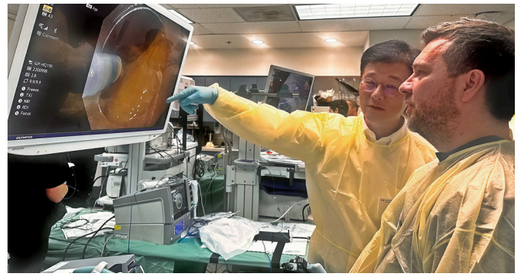
건강증진센터 업무개선 발표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강증진센터 조직문화 및 업무개선 발표회가 10월 7일 동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건강증진센터는 젊은 직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업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부터 'MIC(청년중역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발표회는 올해 2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약 7개월간 활동해 온 MIC 4기의 업무개선 활동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증진센터 직원 60여 명이 참석한 발표회에서는 ▲AI를 활용한 신입·전환배치 직원 적응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협업문화 형성을 위한 칭찬 릴레이 운영 ▲고객·직원 상호존중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김도훈 교수, 클리블랜드 클리닉 초청 강연



9월 26일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 국제 심포지엄 실습 세션에서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왼쪽)가 현지 의료진에게 내시경 근절개술 술기를 지도하고 있다.

소화기내과 김도훈 교수가 9월 24일부터 3일간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치료내시경 분야의 최신 지견과 술기를 공유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미국 「뉴스위크」가 최근 시행한 '2027년 임상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 평가'에서 소화기 분야 세계 1위에 오른 바 있다.

김 교수는 첫째 날인 24일 '차세대 내시경·수술 기술 서밋'에 라운드테이블 패널로 참여해 '내시경과 외과 수술의 관점에서 본 로봇내시경을 비롯한 차세대 치료내시경 기술'을 주제로 프랑스, 일본, 중국 등 각국의 전문가들과 향후 치료내시경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2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소화기내시경 국제 심포지엄(CADEC)'에는 해외 초청 강사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소화기내과·일반외과·대장항문외과 전문의를 비롯해 수련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병변 위치별 위내시경 점막하박리술: 해부학적 구조에 맞춘 술기'를 주제로 강의했다.

실습 세션에서는 내시경 점막하박리술(ESD)과 내시경 근절개술(POEM)을 직접 시연하고 참가자들의 실습을 지도하며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술기를 공유했다.

동정

전인호 교수 세계 정형외과 및 외상학회 차기 회장



정형외과 전인호 교수가 9월 28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세계 정형외과 및 외상학회 세계학술대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세계 정형외과 및 외상학회는 1929년 설립돼 약 2,000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국제 정형외과 네트워크 중 하나로 교육, 연구, 국제 학술교류 등에 힘쓰고 있다. 전 교수의 차기 회장 임기는 2026년 10월부터 2년이다.

모하메드 나빌 알알라위 연수자 우수구연상



산부인과 모하메드 나빌 알알라위 연수자가 최근 열린 제29차 대한비뇨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로봇 천골질고정술 후 해부학적 재발과 관련된 요인들'을 주제로 우수구연상을 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모하메드 연수자는 2025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산부인과 이사라 교수(사진 왼쪽)의 지도로 연수를 받고 있다.

이달의 후원자

(단위: 원)

개인 및 단체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곽노익	100,000,000
국제공영(주)	10,000,000
방준우	1,000,000
알파앤에너지(주)	100,000,000
이도형	50,000,000
정기영	1,000,000
(주)남극냉동	10,000,000
주식회사 케이엘리더스	100,000,000
(주)아엘피테크	10,000,000

불우환자 지원

강동석	1,000,000
김양희	1,100,000
김윤옥	2,000,000
박상수	3,000,000
이승현	1,000,000
이지은	2,250,000
장현종	1,000,000
최영남	500,000
최혜성	435,231
황호찬	100,000,000

직원 및 직원가족

병원발전(중입자치료기 등)

이운기	1,500,000

불우환자 지원

안유라	2,000,000
이주원	1,000,000

- 2026년 9월 30일 기준, 가나다순

※ 문의: 대외협력팀 후원 유닛 (02-3010-6207)

암을 깊이 읽고, 환자를 넓게 보다



대장항문외과 김민현 부교수 잘 먹고 잘 배설하는 일은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대장항문외과는 그 일상이 무너진 환자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막힌 장을 뚫고 암을 제거하는 수술부터 각기 다른 암의 성질을 읽어 치료를 결정하는 일까지. 김민현 부교수는 손의 기술을 넘어 암의 성질과 환자의 삶을 함께 읽으며, 치료의 답을 찾아나간다.

손으로 고치고 결과로 책임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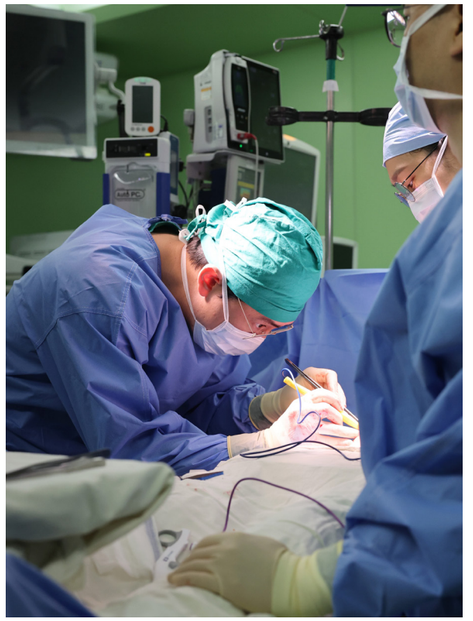
공대 재학 시절 생물공학을 복수 전공하며 바이오 연구를 접했다. 연구를 파고들수록 그 끝은 '사람'으로 향한다는 생각에 닿았다. 사람을 직접 치료하는 일을 하고자 의대로 진로를 선회했고, 손재주를 인정받으며 직접 손을 쓰는 외과를 택했다. 그중 대장항문외과는 더럽고 고되다는 인식 때문에 피하고 싶은 분야였다. "막상 수술을 접해보니 장이 막히거나 터진 환자가 수술 후 눈에 띄게 좋아지곤 했어요. 내 손으로 환자를 직접 고칠 수 있다는 보람이 기다리는 분야에 매력을 느꼈죠."

병동 환자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거나 때를 가리지 않고 응급수술이 이어지는 분야다 보니 매 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 그는 숱한 시행착오와 환자 경험을 통해 언제 힘을 쏟고, 언제 남겨둬야 하는지 배웠다. "외과의사는 결과로 이야기해야 하고 결과에 대해선 무한책임이죠. 그만큼 당직도 많고 고된 일이 반복되고요. 제 모든 걸 걸고 하는 일인데 보람을 느낄 수 없다면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내 손으로 환자를 고치고, 좋아지도록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제 일을 즐기며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암을 제거하고 환자의 삶을 남기다

대장암 수술에서 종양학적 안전성과 기능적 보존이 종종 상충하곤 한다. 암의 완전한 절제로 재발률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되, 배변 기능이나 성기능 등 환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설계한다. 복강경과 로봇수술의 장단점, 개복 가능성, 환자의 선호 등을 고려해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데,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수술 기술만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수술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보다 크지 않다면 수술을 권하지 않는 것도 외과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언제 수술할 것인가'뿐 아니라 '언제 수술하지 않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 또한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쌓여야 위기를 관리할 수 있죠."

김 부교수는 진료실을 찾는 환자의 첫 감정인 '불안'을 줄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능 저하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미리 알려 환자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 환자 보호자가 됐던 개인적인 경험에서 진료 현장이 환자에게 얼마나 큰 압박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의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줘도 환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불안감이 해소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환자와 더 소통하고 교감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눈을 맞추는 것조차 편하지 않은 성격이지만, 안정적인 목소리의 높낮이와 몸짓까지 의식적으로 익혔다. 자주 받는 질문과 설명 내용은 스크립트로 정리해 환자마다 이해 수준에 맞춰 표현을 바꾸며 진료를 이어간다. "결국 의사는 진료 현장이라는 무대 위의 연기자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까지가 수술의 과정인 것 같아요."



치료의 지평을 넓히며

김 부교수의 관심은 암을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에서 어떤 치료를 어떤 순서로 시행할 것인가로 넓어지고 있다. 수술을 먼저 할지,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앞세울지 판단하려면 암 자체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대장암이라도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어떤 암은 작아도 빠르게 전이되고, 어떤 암은 크게 자랄 때까지 다른 장기로 거의 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병기로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암의 분자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DNA 복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제대로 복구하지 못하는 불일치 복구 결함(dMMR) 대장암입니다. 최근 대장암이 간과 췌장을 침범한 4기 암 환자를 만났는데요. 3년 동안 면역 치료를 받은 뒤 수술하려고 보니 종양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반응했습니다. 이 유형의 암은 면역반응이 활발해 면역항암제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 질환이 왜 생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씩 밝히면 치료에 도움이 될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겠죠."

진료와 연구에서 치료 선택지를 넓혀온 김 부교수의 진료 무대가 2027년부터 달라진다. 새로 문을 여는 UAE 아산소화기병원(가칭)에서 대장·항문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면서 전체를 보며 서로 돕는 조직문화가 남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러한 의료 방식과 협업 문화를 그곳에서도 잘 구현해 환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 Storytelling Writer 홍누리

전립선비대증
형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



비뇨의학과 박주현 부교수



비뇨의학과 진료실을 찾는 중년 남성 상당수는 비슷한 걱정을 안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전립선이 크다'는 문장을 발견하고 앞으로 남은 평생을 배뇨장애와 싸워야 한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것이다.

전립선비대증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남성이 겪는 질환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 치료 없이 참고 지낼 필요는 없다. 생활 습관 교정과 적절한 치료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전립선비대증을 둘러싼 오해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관리법을 정리했다.

크기보다 중요한 전립선의 형태와 경도

흔히 전립선의 부피가 클수록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일상생활의 불편도 심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진행해 보면 단순한 크기보다 전립선의 모양과 조직의 성상(단단함의 정도)이 실제 배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요도가 지나는 좁은 구획 안에서 내강이 압박을 받아 소변이 통과하는 길이 좁아진다. 그러나 전립선 전체의 부피가 크더라도 요도가 지나는 길목이 비교적 넉넉하게 유지돼 배뇨에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공간에 비유하자면 장애물 자체는 커졌지만 출입구는 온전히 열려 있는 것이다.

반대로 전립선 크기가 정상 범위에 가깝거나 작더라도 방광 입구 쪽을 막는 형태로 조직이 자라나거나 그 질감이 돌처럼 단단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는 방의 유일한 문을 무거운 바위가 막고 있는 것과 같아 약물치료를 병행해도 증상 개선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 이처럼 크기가 작아도 형태적인 폐색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치료에만 의존하기보다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야간뇨, 전립선 탓하기 전에 배뇨 습관부터 점검해야

전립선비대증은 발생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전립선이 점차 커지면서 빈뇨, 야간뇨, 절박뇨 등 배뇨 증상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환자들이 가장 큰 불편을 호소하는 증상은 단연 수면 중 소변이 마려워 잠에서 깨는 야간뇨다. 밤마다 몇 번씩 화장실을 오가다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다음 날의 피로와 업무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많은 환자들이 야간뇨를 전립선비대증이 악화된 결과로만 여겨 더 강한 약의 처방을 요구한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전립선 자체의 물리적인 문제라기보다 환자 본인도 모르게 굳어진 잘못된 생활 습관과 배뇨 습관이 야간뇨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저녁 식사 때 국물을 많이 먹거나 식후 과일을 즐기는 습관, 잠들기 전 무심코 마시는 맥주나 카페인 음료는 잠든 사이 많은 양의 소변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중 소변량을 줄여주는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데 여기에 수분 섭취가 더해지면 방광은 밤새 쉴 틈 없이 팽창한다. 따라서 약물에만 의존하기보다 취침 2~3시간 전부터 철저히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 음식을 피하는 등 올바른 배뇨 습관을 설계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 훨씬 더 중요하다.

약물치료는 '완치'가 아닌 '조절'

"전립선비대증 약물치료는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라 증상을 다스리는 조절입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환자들이 처음에는 실망한다.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흔히 접하는 고혈압이나 당뇨병도 약 한 알로 완치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수치와 상태를 조절해야 하는 대표적인 만성 질환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도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습관을 관리해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약을 끊고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배뇨와 관련된 전립선 약물치료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방광을 자극하는 식습관을 긍정적으로 교정하면서 규칙적인 배뇨 리듬을 되찾는다면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환자 스스로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형성하고 유지한다면 약물치료를 최소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환자 상태에 따른 맞춤형 치료

비대해진 조직을 제거하거나 넓혀주는 수술 및 시술도 전립선비대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하지만 수술이 모든 환자에게 첫 번째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이거나 심혈관계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마취와 수술 자체가 부담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느끼는 배뇨 불편감의 양상에 따라 신체적 무리가 훨씬 적고 안정적인 약물치료를 우선 시행하기도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전립선 모양과 방광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약이나 수술에 의존하기보다 건강한 습관을 통해 내 몸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사우디의 유방·갑상선 치료 발전에 힘쓰고 싶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칼리드 알쿠라시 전문의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킹 파이살 병원(King Faisal Hospital Makkah)의 일반외과 전문의입니다. 전공의 시절 여러 분과를 두루 경험하던 중 검진과 진단, 수술, 장기 추적 관찰로 이어지는 유방·갑상선 질환의 치료 과정에 흥미를 느꼈어요. 전문의 취득 후에도 이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를 앞두고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모두들 한국의 서울아산병원을 추천하더군요. 이미 서울아산병원에서 연수받은 동료들도 많아 더욱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한국에 온 뒤 유방외과에서 1년, 내분비외과에서 1년, 총 2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두 진료과에서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내분비외과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칼리드 알쿠라시 전문의.

고난도 유방·갑상선 수술 노하우를 배우고 있습니다.

유방외과에서는 이새별 교수님께 지도를 받았고, 현재 내분비외과에서 정기욱·성태연 교수님께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연수 기간 수술실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연수 초반에는 매일 다섯 건 이상의 수술에 참여할 정도였죠. 제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수술뿐 아니라 외래와 응급 진료, 각종 행정 업무까지 있다 보니 새로운 수술과 치료법에 대한 학습과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적었어요. 한국에서는 온전히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한국에서 접한 수술 케이스들은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훨씬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수술 방식은 유사하지만 더 매끄럽게,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과 자연 경관에 매료됐어요!

2년 가까이 지내니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제법 먹을 줄 알아요. 먼저 한국 생활을 하고 있던 무슬림 동료들 덕분에 할랄 식당도 제법 알게 됐고, 돼지고기가 들어가지 않은 김치찌개와 닭갈비를 좋아하게 됐죠. 또한 한국에 찾아온 아내와 함께 부산과 제주를 여행하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둘러본 순간은 잊을 수 없어요. 다음에는 연수 말고 오로지 여행만을 위해 한국에 오자고 다짐도 했죠. 아, 그래도 끝내 적응하지 못한 건 장마철의 끈적한 날씨입니다. 집에서 병원까지 15분 거리를 걷는 동안 땀에 흠뻑 젖어 다시 씻어야 할 정도였으니까요(웃음).



유방외과(위), 내분비외과(아래) 동료들과 함께 (원 안이 칼리드 알쿠라시 전문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새별, 정기욱, 성태연 교수님.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성내천 다리에서 한 컷. 겨울 추위는 견딜만😂
한글 이름 ‘칼리드’를 쓴 머그컵. 잘 쓰지 않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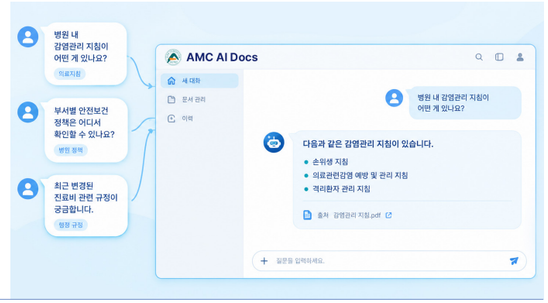
‘수술’이라는 공용어로 동료들과 하나됐습니다.

병원 생활에 있어 동료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방외과, 내분비외과와 수술간호팀 의료진 모두 환자에게 헌신적이었고 최고의 치료를 위해 노력했어요. 수술이 시작되면 국적, 언어, 종교, 문화를 넘어 ‘수술’이라는 공용어로 하나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밖에도 라마단 기간 낮에 금식을 해야 하는 저를 배려해 근무 스케줄을 조정해 준 동료들, 할랄 음식을 궁금해하며 이슬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준 동료들…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 달이면 연수를 마무리하는데, 가장 아쉬운 것도 동료들과의 작별이랍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진료와 환자경험 개선에 기여하고 싶어요!

이론을 공부하고, 뛰어난 전문가에게 배우고, 스스로 적용한 뒤 쌓은 노하우를 다시 가르치는 것. 외과의사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한국에서 만난 동료들과 큰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저는 또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술기와 접근법을 사우디 현지에 맞게 적용해보려 합니다. 서울아산병원의 진료 흐름과 운영 체계를 알게 된 것도 큰 성과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도 적용하면 좋겠다고 느낀 점이 많았거든요. 이 아이디어들을 잘 접목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진료와 환자경험 개선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우리 병원은 왜 직접 AI 서비스를 개발할까



이원구 IT전략팀장

AI, 선택이 아닌 필수

최근 의료계에서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고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구축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AI는 이제 조직의 미래 경쟁력, 생존 전략과 직결되는 현실이 됐습니다.

글로벌 경영 전문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AI를 업무에 도입했을 때 작업 완료 속도는 25.1% 빨라지고 작업 처리량은 12.2% 증가했으며, 성과의 품질은 40% 이상 향상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성 증대는 숙련도에 따른 성과 격차를 줄이는 결과로도 이어집니다. 주니어 직원의 성과는 43%나 향상됐고 시니어 직원은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효율성을 17% 증대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의료 현장의 AI는 환자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환자 중심 의료'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무기록 요약 및 자동 문서 생성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회진 준비와 차트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 의사가 환자의 눈을 더 오래 맞추고 따뜻한 설명을 건넬 수 있게 합니다. 또한 AI가 소견서나 처방전, 수술 후 주의사항 등을 환자 눈높이에 맞게 쉬운 언어로 안내함으로써 환자가 질환을 명확히 이해하고 치료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돕기도 합니다. 이에 더해 생체 신호와 EMR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심정지나 패혈증과 같은 징후를 수 시간 앞서 예측하는 등 안전한 치료 환경을 위한 든든한 방어벽 역할까지 해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AI 도입은 환자의 진료 만족도와 의료의 질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AI

기업들은 ChatGPT나 Gemini와 같은 외부의 고성능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그대로 가져와 비즈니스에 접목하곤 합니다. 구축 기간이 짧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AI 도입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및 의료데이터 보호'입니다. 환자의 민감 정보를 외부 AI에 입력해도 안전한지,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는 것이 법적·윤리적으로 적절한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병원은 '외부의 고성능 AI'와 '내부의 안전한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민감 데이터는 병원 내부망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자체 시스템이 처리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업무는 외부의 고성능 AI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로 나가는 데이터에서 개인정보를 완벽히 걸러내는 기능도 검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병원 내부에 AI 서비스용 GPU와 하드웨어를 도입하고, 자체 LLM을 설치해 원내 데이터를 안전하게 연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 규정과 방대한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AI Docs'를 올해 오픈한 데 이어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채팅형 서비스 'AMC Chat'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AMIS 3.0의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연동해 진료와 행정 전반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개발 중입니다.

이러한 여정은 환자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책임감 있는 선택이며, 우리 시스템을 가장 잘 아는 우리가 직접 데이터와 AI를 연결하려는 주도적인 시도입니다. 외부 기술자들은 의료 현장의 복잡한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우리 의료진과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현업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우리만의 AI'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고성능 AI 기술에 우리 병원만의 고품질 데이터를 결합해 그 어떤 의료기관과도 차별화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의료 질을 높이고 업무를 스마트하게 바꾸며 환자에게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 병원 AI 혁신의 여정에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무팀 김민경 사원입니다



"응급키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바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 처음 출근하며 어떤 각오를 다졌나요?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제가 속한 원무팀은 각자의 역할이 분명하지만 어려운 순간에는 한 팀처럼 움직여서 적응하는 데 한결 수월했어요. 저의 업무는 의료비 지원 제도나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한 환자분들의 질문에 깔끔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인데요. 환자 민원에 크게 당황했던 날이 있어요. 제 표정을 살핀 팀원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둘 다가와 함께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요. 덕분에 '살아남기 프로젝트'에서 이제는 '장기근속 프로젝트'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팀원들의 진가를 언제 느끼게 되나요? 원무팀이라고 하면 단순히 수납과 예약 창구 업무를 떠올리기 쉬워요. 그런데 병원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예민한 때를 지나는 환자분들이 모이는 곳이고, 원무팀은 치료 여정의 처음과 마지막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진료비나 대기 시간에 대한 불편함을 원무 창구에서 터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에 차분히 대응하며 업무를 처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팀원들을 보면 '원무팀 어벤져스'라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합니다.

나만의 강점으로 꼽을 만한 것이 있다면요? 사람을 빠르게 파악하고 잘 기억하는 성격이요. 몇 달 전에 응대했던 환자분을 먼저 기억하고 반갑게 인사드리곤 해요. 그러면 "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라는 인사가 돌아와요. 환자분들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원하는 바를 빠르게 파악해 안내해 드릴 때 저만의 강점이 있다는 걸 느끼죠.

반대로 일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점도 알게 되죠? 상대방의 부탁에 거절을 잘 못해요. 도움 요청을 받으면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몸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이는 게 능사는 아니더라고요. 제 업무와 상황부터 살피고 조율하는 것이 먼저라는 인식을 갖게 됐어요. 신경 써서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려고 합니다.

병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를 꼽는다면요? 친절 직원 칭찬 카드를 하루에 3개나 받았던 날입니다. 처음에는 얼떨떨했지만 저의 친절이 환자분들께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는 자체로 뿌듯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첫 방문을 했는데 덕분에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더욱 잘 배우고 업무에 능숙해져서 웃으며 일 잘하는 만능 인재가 되고 싶어요. '업무는 완벽하게, 존재감은 확실하게!'라는 저만의 목표대로요.

※ 'AMC 루키'는 각 부서의 신입직원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본인을 알리고 싶은 신입직원,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영화 〈오디세이〉와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재활의학과 김승민 레지던트

하루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대개 특별할 것이 없다. 익숙한 문을 열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잠시 숨을 돌린다.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로 돌아가기 위해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영화 <오디세이>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생각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귀환의 의미였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아」를 바탕으로 한다.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오디세우스는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맷 데이먼이 연기하는 오디세우스의 여정은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으로 삶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가 향하는 곳에는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가 있다.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소망이 긴 모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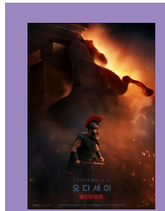
이 이야기에서 마음이 머무는 부분은 목적지가 지닌 소박함이다. 수많은 위험을 지나 마침내 도착하고 싶은 곳이 결국 가족과 함께 살아갈 자리라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더 멀리 나아가고 더 많은 것을 이루는 일을 성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식탁에 다시 앉고,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를 나누는 일이 가장 간절한 목표일 수 있다.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오래된 신화는 새삼 돌아보게 한다.

재활의학을 공부하는 전공의로서 이 귀환의 이야기는 회복의 과정과도 겹쳐 보였다. 큰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자신의 생활로 돌아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고 한 걸음을 내딛고 다시 음식을 삼키는 일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제다. 회복의 목표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돌아가고 싶은 생활이 무엇인지 함께 물어야 하는 이유다.

물론 현실의 회복이 언제나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달라진 몸에 맞추어 새로운 방법을 익히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생활을 다시 꾸려가는 것 역시 소중한 회복이다. 그렇기에 '귀환'이라는 말을 과거의 자신을 되찾는 일로만 좁히고 싶지는 않다. 지금의 자신으로 살아갈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까지 포함할 때,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은 더욱 가까워진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고 싶으며 그곳에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돌아오는 사람만큼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도 생각하게 된다. 환자의 치료 일정 곁에는 달라진 가족의 일상이 있고, 작은 호전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료진 역시 매번 분명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찾고 다음 걸음을 준비할 수는 있다. 긴 여정에서 그런 동행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돌아보게 된다.

영화 <오디세이>를 신화와 모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이 향하는 곳을 잠시 잊은 이들에게 권하고 싶다. 특히 누군가의 회복을 기다리거나 그 곁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귀환의 의미를 저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이 영화는 익숙한 하루를 새롭게 바라보게 했다. 오늘 무사히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나눌 평범한 시간이 있다는 것. 그 소중함을 조금 더 오래 기억하고 싶다.



오디세이

개봉: 2026.08.05
장르: 액션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출연: 맷 데이먼, 톰 홀랜드, 앤 해서웨이

※ '컬처 & 라이프'는 직원들이 감상한 작품과 후기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영화, 뮤지컬, 책 등을 통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복이 가르쳐준 성취감



진료지원팀 형진주 과장



아쉬탕가 요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30대에 들어서면서 운동의 즐거움을 알게 돼 필라테스, 수영, 발레, 일반 요가 등 다양한 운동을 해봤어요. 그중에서 요가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집중력과 꾸준함이 필요한 운동이라는 점에 매력을 느꼈습니다. 더 깊이 있게 배우고 싶어 아쉬탕가 요가를 시작했어요. 아쉬탕가 요가는 정해진 시퀀스(자세 순서)를 반복 수행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전통 요가입니다. 특히 인도 마이솔 지역의 전통적인 수련 방식인 '마이솔 수련'에 매력을 느껴 2022년부터 지금까지 출근 전 새벽 수련을 이어오고 있어요.

아쉬탕가 요가의 매력은?

마이솔 수련에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각자의 진도에 맞게 수련합니다. 선생님은 수련생들을 지켜보며 필요한 순간에만 지도를 해주고요. 그래서 자신의 호흡과 움직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요. 반복 수련으로 충분한 힘과 유연성, 안정성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다음 동작을 배웁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시퀀스를 반복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순간에는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고난도 자세 중 하나인 '카란다바아사나'를 성공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팔의 힘과 균형 감각, 집중력이 모두 필요한 자세인데 거의 6개월 동안 반복 연습한 끝에 처음으로 성공했거든요. 오랜 시간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해결했을 때와 비슷한 기분이었어요. 2년 전 발리 여행 중 앞마당 너머로 숲과 논이 펼쳐진 요가원에서 땀 흘리며 수련했던 것도 매우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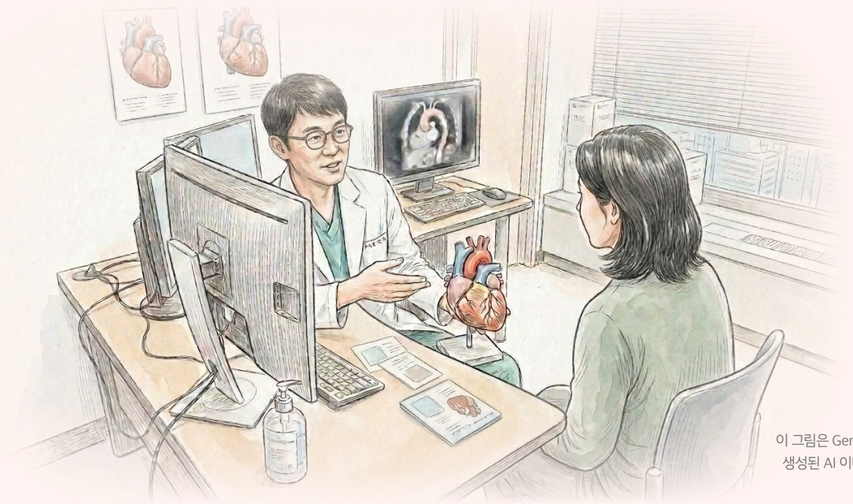
동료 직원들에게 추천한다면?

아쉬탕가 요가는 근력과 유연성을 모두 요구하는 운동인 만큼 올바른 지도 아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도 마이솔의 공식 기관인 SYC에서 승인한 교사가 지도하는 곳이라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수련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수련하면 몸의 변화뿐 아니라 집중력과 끈기도 함께 기를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 '나의 취미생활'은 다양한 취미생활을 즐기는 직원들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운명처럼 알게 된 수술

대동맥판막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젊은 나이여서 조직 판막, 기계 판막 중 인공 판막으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환자의 폐동맥판막으로 손상된 대동맥판막을 대체하는 로스(ROSS) 수술에 대해 듣게 됐습니다. 국내에서 다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수술이고, 현재 김호진 교수님 외에 집도하는 분이 없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잘 끝난 지금은 로스 수술법을 운명처럼 알게 된 것이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고난도 수술이고 특히 저의 경우 수술 시간도 예상보다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시간 가까운 수술 후 새벽에 출혈이 생겨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기는 동안 제 앞에 앉아 계셨던 교수님을 잊지 못할 겁니다. 퇴근 후 종종 혼자 오셔서 제 상태를 확인하는 교수님 얼굴을 볼 때마다 정신없는 와중에 안심이 됐고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 좋은 선례로 남고 싶어 혈압도 철저히 관리하고 약도 착실히 복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그림은 Gemini를 통해 생성된 AI 이미지입니다.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술이 끝난 후 환자분의 회복 의지가 강했고 외래 진료를 올 때마다 건강 관리를 더욱 열심히 해나가는 것을 보며 의사로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동맥판막 질환 수술 시 기계 판막을 사용하면 환자가 평생 항혈전제 복용을 해야 하고 동물 조직을 이용한 조직 판막은 수명이 짧아 재수술 위험이 큽니다. 각 수술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 환자의 폐동맥판막을 사용하는 로스 수술법을 연구해 다시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동맥판막 질환 환자들이 오랜 기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호진 부교수

※ '감사우체통'에서는 고객이 보내온 고마운 마음과 직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매일 출근 기행

암병원간호1팀 안은주 대리



2013년 입사해 신규간호사 교육을 받을 때 병원장님께 바라는 세 가지를 적는 시간이 있었다. 내가 가장 먼저 적은 것은 이랬다. "인천에도 서울아산병원을 만들어 주세요." 그때의 막연했던 바람이 인천과 잠실을 10년 넘게 출퇴근하면서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 됐는지 모른다.

내 출퇴근의 동반자는 자동차 '루루'다. 자취방 계약이 무산되면서 홧김에 산 차였는데, 어느새 30만 km를 바라보는 가족 같은 존재다. 왕복 100km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 달리며 '지각 한 번 없는 간호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긴 출퇴근에 담긴 웃픈 추억도 많다. 나이트 근무 후 김천에 사는 동료와 누가 먼저 집에 도착하는지 내기를 했는데, 결과는 김천 승! 그날은 인천이 세상에서 가장 먼 도시처럼 느껴졌다. 만삭이던 어느 여름에는 장마로 퇴근길 도로가 마비되어 몇 시간을 차 안에 갇히는 바람에 비닐봉지로 초간이 화장실을 대비해 둔 일도 있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다. 세 살배기 아이는 병원에 와서 "엄마 병원은 왜 이렇게 멀어?"라는 말로 내 출퇴근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버스 두 번, 지하철 세 번 갈아타야 한다면서요?"라며 놀라워하셨다.

긴 출퇴근은 지금도 계속된다. 남들은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나는 커피값 그 이상을 톨게이트 비용으로 낸다. 운전하는 동안에는 영어도 공부하고, 강의도 들으며 하루를 정리한다. 오늘 만난 환자를 떠올리며 보람찬 하루였다는 생각이 들면 조금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2013년 신규 간호사의 소원이었던 서울아산청라병원이 문을 열면, 자전거를 타고 5분 만에 출근하는 상상을 해본다. 루루에게도 휴식을 선물하고 싶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멀어도 서울아산병원이 좋았고, 앞으로도 서울아산병원이 좋을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이기에 먼 길도 기꺼이 달려왔다.

독자의 소리

뉴스매거진에 대한 감상, 동료에 대한 칭찬, 신입직원 소개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를 독자엽서에 담아 주세요.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선정된 직원에게는 달마이어 이용권을 드립니다.

영상의학팀 박경진 대리

'헬스에디터 - 운전 뒤 찾아오는 허리 통증, 이유가 있다'가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 장거리 운전 후에 허리가 아팠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음 호에도 유용한 건강정보 기대하겠습니다.

수술간호팀 김민정 대리

저도 뮤지컬 <킹키부츠>를 봤었는데요. '컬처&라이프 -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를 읽으며 그때 느꼈던 감동과 여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넘버인 'Raise you up'도 다시 듣고 싶네요.

정신건강의학과 조형우 레지던트

'사람&이야기 - '마음지기' 한 걸음 더 가까이'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직원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안명희 교수님과 김서희 임상심리사 선생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외과간호팀 김영현 과장

'AMC 광장 - 치료에서 일상까지 위드원(WithONE)'을 읽으며 초고령사회에서 '앞선 의술,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병원 통합돌봄체계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박상현 레지던트

저도 학생 때 농구를 즐겨하곤 했는데 '나의 취미생활 - 열정과 땀으로 사람을 이어 주는 농구'를 읽으며 그 시절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